

老前人嘉言懿行



◎ 袁翥鶚 前人
韓譯：蕭佩恩

張老前人成道，轉瞬已是週年。余有幸追隨老前人修辦六十餘寒暑，種種情景，恍如昨日。於今緬懷老前人，不勝感觸良深。

斯時也，此地雖曰寶島，仍是劫後餘生，斷壁殘垣，一片狼藉。景象之蕭條，是難以供今日所能想像。真可謂華路藍縷，度化不易之境。然而老前人常自言：「生鐵不辭冷熱熬錘，故能久煉成鋼，用途廣泛。行者不畏順逆棒喝，故能歷練成功，堪為行辦。」以自我鞭策。

於此能引領我等同來一批人，在種種誤解考驗之下，不畏艱難，使我們絕處逢生，全部投入食品製造之工作。解決了生活大事。其任勞任怨之精神與真知灼見之大智慧，揆諸當前，無可比擬也。

노전인의 좋은 말씀과 좋은 행동

◎ 원저악전인
번역자 : 소패은

장노전인께서 성도하신 지 벌써 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노전인을 따라 60여 년간 도무를 처리하고 수도할 수 있었는데 각종 광경이 엇그제 같습니다. 이제는 노전인을 그리워하는 느낌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만에 처음 왔을 때, 전쟁을 겪었던 대만은 다시 일어나려 해도 환경이 몹시 무너져서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그 때 상황을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어서 도를 전하기가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전인께서는 내내 “생철은 열을 가하고 냉각하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용도가 많은 강철이 될 수 있듯이 수도인도 순경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간에 다 무섭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온 일행을 영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각종의 오해와 시험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길을 찾아 식품제조장사를 같이 하면서 생활문제도 해결 하였습니다. 이런 고생을 겁내지 않으셨고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신과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지혜는 현재 세상에 아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歲不我與，亦已是二十餘年之往事矣。憶起老前人在基隆靜養時，有傳我心法曰：「道根於心，忠以求諸心，體也。道見於事，恕以求諸事，用也。蓋忠恕固道也，道本自然，人能忠恕，未必自然，然亦可達乎自然。惟體道之君子，必忠以盡己之心而不自欺。必恕以推己之心，以公待人。則私日以去，理日以存，物我無間與道渾然為一之境，然亦可謂達道不遠矣。忠猶形也，恕猶影也，不本之忠，則做不出恕，待恕而行，而忠亦流露於其間，如影之隨形，此乃人道也。與《論語》曾子所言，唯聖人之自然忠恕有別，謂之天道也，是夫子之一貫之道也。明此而傳之，則庶乎其不差矣。」聆聽開示，醒我愚昧而茅塞頓開。隔年，正義精修班改制為忠恕學院，必也固其緣由乎？

記得民國九十年(2001)十月廿六日，承蒙 天恩師德，老前人慈悲，以「葉落歸根，來時無口。」一句《壇經》之禪機啟示，委余代領基礎忠恕道場之重任。後學惶恐萬分，幸賴老前人德化所被，諸位點傳師，同心同德，得道務推動尚稱平順。展望未來，能承繼老前人修辦心愿，落實真修實辦，合德同心，永續道脈，直到千秋萬世。

세월이 쏘살같이 지나갔는데 이미 20년 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노전인께서 基隆에서 휴양하고 계실 때 저에게 심법을 전하신 일이 생각납니다.

“도의 근본은 우리의 본심인데, 충(忠)이란 모든 마음을 구하는 근본(體)이 되는 것입니다. 도는 일에서 나타나는데 서(恕)란 모든 일을 구하여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서로 본도를 지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도는 원래 자연이어서 사람이 능히 충서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연습하고 격려하면 충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충은 자신의 본심을 다해 행동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서는 반드시 남의 입장을 바꾸어 헤아려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적인 날이 멀리 떨어져야 천도가 있는 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별심도 없어지고 도와 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 멀지 않습니다. 충은 우리의 몸과 같고 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은 충을 하지 않으면 서를 해낼 수 없습니다. 서를 행할 수 있으면 충도 그 행동사이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충과 서는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도입니다. 논어에서 증자께서 말씀한 충서와 다릅니다. 성인들께서 말씀 하셨던 충서는 천도입니다. 공자께서 오도 일이관지라는 말씀도 천도입니다. 우리가 증자께서 말씀 하셨던 충서를 천도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그럼 우리가 천도와 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들은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계기로 다음 해 정의정수반이 충서학원으로 성립했습니다.

2001년10월 26일에 천은사덕, 노전인 자비로 “엽락귀근,래시무구”라는 단경의 선기계시(壇經之禪機啓示) 로 저에게 기초충서도장을 영도하는 큰 책임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후학은 너무 당황하고 겁났습니다. 다행히 노전인께서 원력을 주시고 가호해 주셔서 각위 점전사님과 함께 일심일덕으로 도무를 평탄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노전인께서 기원하신 대로 계승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닦고 진실로 판도를 실행하여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도맥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